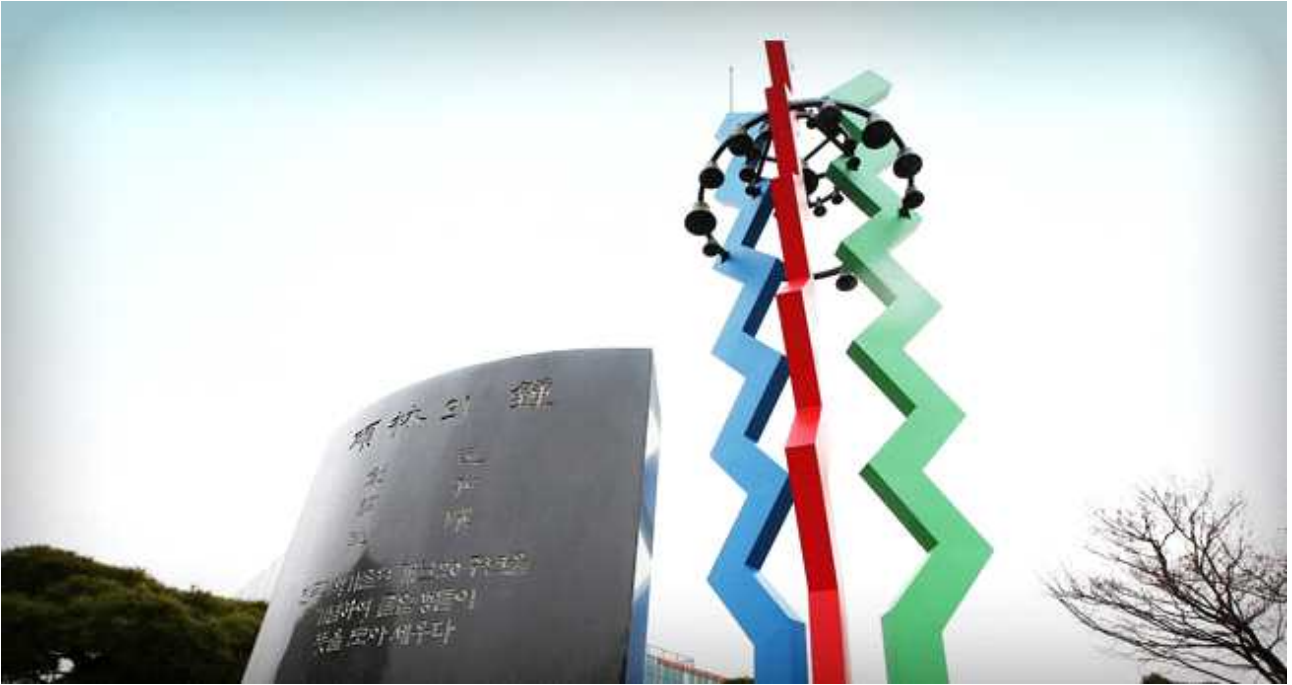


## 다시 올리는 석림(碩林)의 종



### ▶ 까리용이 마지막으로 울렸을 때는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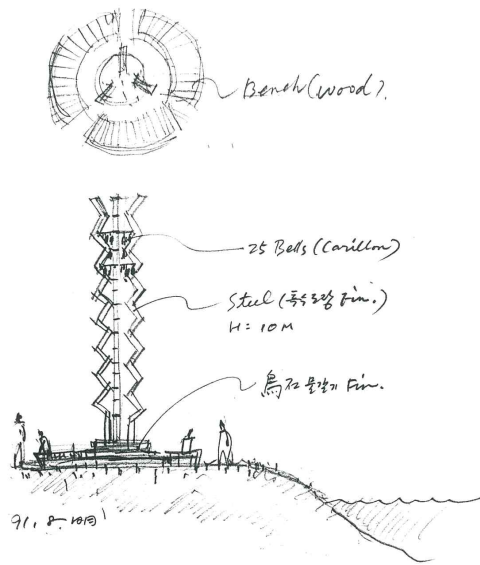
‘그냥 궁금해서... 들어볼 날이 올는지?’

2012년 5월 학내 커뮤니티 <아라>에 올라온 글이다. ‘학부 03학번인데 소리를 들어보기는 했다. 하지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끔찍한 불협화음이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중에는 ‘학부 시절에 까리용이 용(龍)이 아니라 '편종'을 뜻하는 프랑스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읽는 사람을 ‘충격’에 빠지게 한 댓글도 있었다.

까리용에 연주 기능이 있다는 ‘소리(聞)’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音)’의 실체를 들어본 학부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본교 출신의 고학번 박사 과정쯤 돼야 ‘예전에 들어보기는 했다.’며 희미한 옛 기억의 그림자를 더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멈춰있던 까리용이 이달 초 되살아났다. 현재 학부생들에게는 전설처럼 여겨지던 편종의 ‘새 울림’을 축하하는 의미로, 누구나 알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까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 1992년 10월 17일생 / 본명 : 석림(碩林)의 종 / a.k.a. : 까리용



▶ 김명석 교수가 1991년 8월 10일에 스케치한 까리용 디자인

1991년 어느 여름날,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의 방에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인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가 찾아왔다. 총 동창회가 KAIST 상징물을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개교 20주년이 되던 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까리용을 태동시켰다.

위치는 오리 연못 근처로 정해졌다.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 조형물이 주변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김명석 교수가 디자인의 영감을 얻은 곳도 오리 연못이다. 근처를 산책하던 중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고 지금과 같은 지그재그 형태를 착안했다. 하늘로 솟구치는 아지랑이처럼 과학기술의 미래도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원하는 의미다. 인류의 빛이 되는 과학기술을 상징하기 위해 빛의 삼원색인 빨강·초록·파랑을 세 기둥에 입혔다. 색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아폴로 우주선을 도색했던 특수 페인트를 사용했고, 강한 태풍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까리용의 기능을 더했다. 후배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꿈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본디, 까리용은 레버와 페달을 눌러 종을 울리는 악기지만 우리 학교는 솔레노이드로 각각의 종을 제어하는 전자식 연주를 도입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에 최초로 들어선 까리용이었으며, 1992년 10월 17일 완공되었다. 지금은 까리용이란 별명으로 널리 불리고 있지만 '석학들의 숲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뜻의 '석림(碩林)의 종'이 정식 명칭이다. 건립비에는 KAIST가 추구하는 가치인 '창조·조화·도약'이 새겨져 있다.

## ▶ 석림(碩林)의 종, 어디까지 알고 있니? = 10문 10답 까리용

### 1. 까리용, 언제 멈췄을까?

=> 까리용은 크게 두 차례의 수난기를 거쳤다. 첫 번째 고장은 1996년 이후로 오리연못 주변의 조경 공사를 하는 중에 굴삭기가 까리용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 사고로 한동안 연주가 중단됐다가 A/S를 통해 제 소리를 되찾았다. 까리용의 두 번째 수난은 2003년(추정)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종 부분에 장착되어있는 솔레노이드의 일부가 오작동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동요라고 알고 들어도 도무지 무슨 곡인지를 맞힐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나서 그 이후 까리용 연주가 중단됐다.

### 2. 까리용은 특정 연구실의 자산이다?

=> 그렇다. 까리용이 세워진 직후에는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의 연구실 학생들이 관리했고, 현재는 기계공학과 이정권 교수의 연구실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학교 시설팀이 사실상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 보수도 담당했다.

### 3. 까리용은 어느 나라 기술일까?

=> 까리용을 수리하려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 ‘아니다 덴마크 기술자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 우리 학교 까리용은 네덜란드 회사가 만들었다. 더 정확하게는 세계 유수의 까리용 전문 제작사인 Royal Eijsbouts 사의 기술이다.

### 4. 까리용을 통제하는 메인 컴퓨터는 어디에 있을까?

=> 까리용의 메인 컴퓨터는 교직원 식당 건물에 있다고 한다. ‘식당과 까리용’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이곳이 동창회 사무실로 쓰였기 때문이다.

### 5.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을까?

=> 까리용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전용 건반이 있었다. 까리용 벤치 밑에 있는 컨트롤 유닛에 건반을 연결하면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었다. 김명석 교수가 축제 때 까리용 연주 대회를 해보자고 제안한 적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 6. 까리용에서는 총 몇 곡의 음악이 연주될까?

=>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설립 초창기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포함해 100곡 이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에 연주되었다. 현재는 하루에 네 번 (9시·12시·13시·18시) 울리며 클래식, 동요, 영화음악, 팝 등을 아우르는 총 28곡이 선곡되어 있어 요일과 시간대 별로 각기 다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 7. 까리용의 소리, 어디까지 들릴까?

=> 설립 당시는 캠퍼스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비 오는 날이면 캠퍼스 전역에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보수를 마친 현재, 까리용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AIST 공식 페이스북이나 학내 게시판에서 공론화한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까리용 소리를 가장 희미하게 듣는 캠퍼스 최전방의 학우는 누구일지 궁금하다.

## 8. 멈춰있는 까리용이 드라마 〈카이스트〉에도 등장했다?

=> 그렇다. 2000년 5월에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 66회와 67회에서 〈내일〉이라는 부제의 에피소드로 다뤄졌다. 전자과의 정태와 민재가 주축이 되어 고장 난 까리용을 수리하는 내용이다. '까리용 프로젝트2'로 명명되는데, '프로젝트1'이 아닌 이유는 4년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96년에 까리용이 멈췄을 때도 전자과에서 팀을 만들어 수리를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네덜란드 기술자를 불러 보수를 마친다. 극 중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인 KAIST에서 까리용을 수리하지 못하고 외부 기술자를 불러온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묘사되었고, 등장인물의 갈등과 화합 끝에 '까리용 프로젝트2'를 성공하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 9. 드라마 〈카이스트〉의 '까리용 프로젝트'가 실제 KAIST에서 시도되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한 의견 교환은 있었다. 2012년 5월경 〈아라〉에 학생들이 힘을 합쳐 까리용을 수리해보자는 글이 올라왔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전기·전자, 구조 음향 분야의 기계공학, 까리용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금속재료 전공 관련자들이 교수님 한 분을 위촉해 HRH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해보자는 의견이었다. 이 게시글에 '재밌겠다.', '진짜 진행하는 것이냐?' 등의 댓글과 HRHR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전산과 박사과정 학생의 진지한 호응이 뒤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 10. 까리용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이 글을 읽는 구성원들의 몫으로 남긴다.

=> 9번 질문에서 한 학우가 까리용 보수를 제안했던 이유는 '학교의 상징물을 울지 않는 박제로 남겨진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진행하던 연구가 위기에 처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진실은 조용히 묻어두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책임은 물론 학교에 있다. 하지만 학교의 상징물이니만큼 구성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더해진다면 까리용이 이렇게 오랜 시간 멈추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까리용이 장거리 발사체라는 소문도 있죠. 전쟁 시엔 세 기둥이 안테나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발사된다는...' 한 학우의 SNS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엉뚱해도 좋다. 관심은 상상이 되고 상상은 소문이 된다. 학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소문들이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살아난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캠퍼스 생활에도 소소한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 ▶ 다시 울리는 석림(碩林)의 종, 그리고 당부의 말.

“드디어 까리용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멈춘 채로 방치해놓았다는 생각에 실로 통탄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까리용은 개교 20주년 당시 수많은 동문이 정성을 다해 모금한 기금으로 제작해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KAIST의 기념물입니다. 당시,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에 까리용을 설치한 데에는, 음악 소리가 KAIST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까리용이 KAIST 도약과 조화의 상징으로 오래 오래 KAIST와 졸업생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

“제가 이 학교에 온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까리용을 설계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는 까리용을 보며 참 안타까웠는데, 까리용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퇴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예술적 감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술과 과학이 합쳐지고, 감성과 성이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까리용 소리가 새롭게 울려 퍼지는 학문의 동산에서 창조하고 조화를 이루며 도약하는 꿈을 이뤄가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